

| 이달에 만난 사람 |

●●● 오순철 서울대공원 사육과 조류팀장

을유년, 닭처럼 비상(飛上)하기 바라며…

을유년 닭띠 해를 맞아 과천 서울대공원동물원에서는 전세계에서 사육되는 닭을 전시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관람객에게 닭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번 행사 담당자 오순철 조류팀장을 만나 행사 의의와 전시현황을 들어보았다.



Q “옐로우 꼬꼬, 세계닭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올해 을유년 닭의 해를 맞아 닭이 지닌 상징성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지난해 청년실업, 서민 경제 악화 등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였다 고 생각하는데 닭은 첫닭이 울면 여명이 밝아오고, 암탉은 알을 낳아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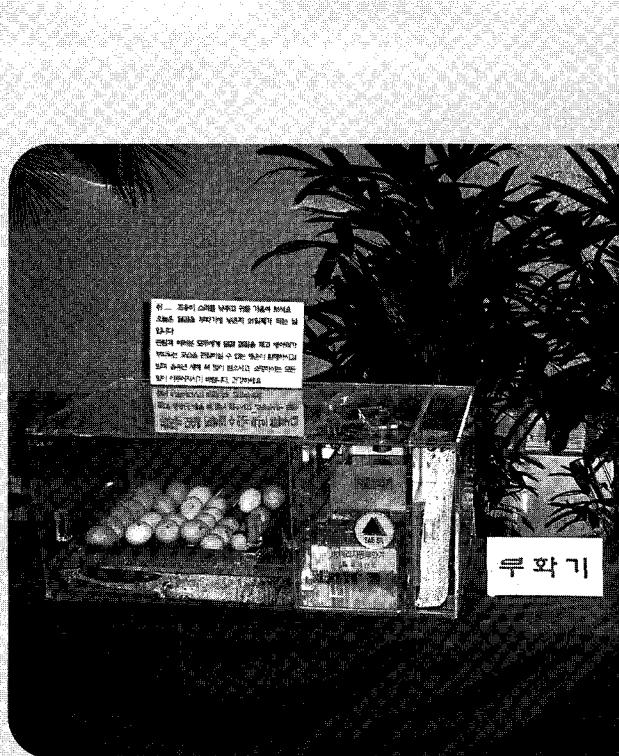
로 올해 닭이 상징하는 것처럼 희망찬 새해가 되라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 행사는 언제까지 개최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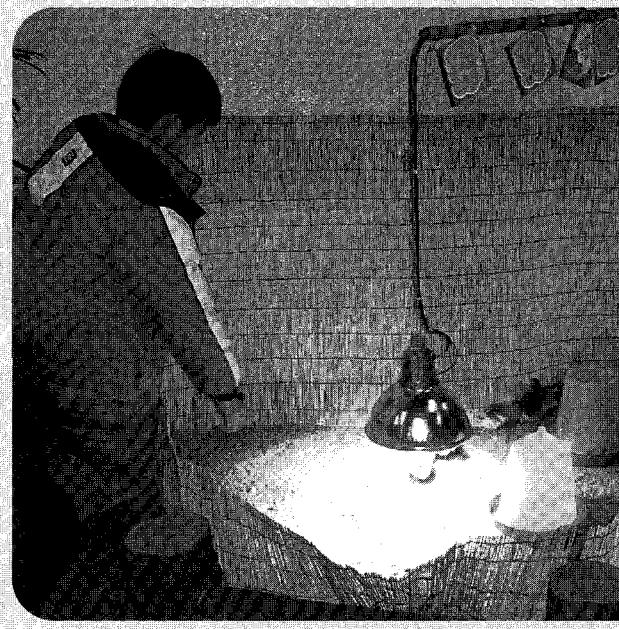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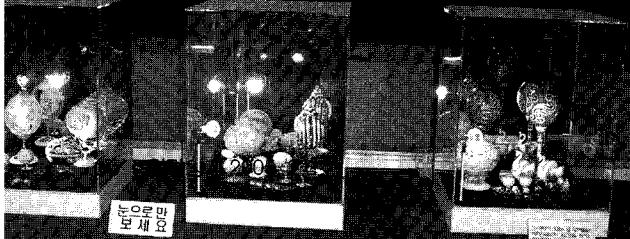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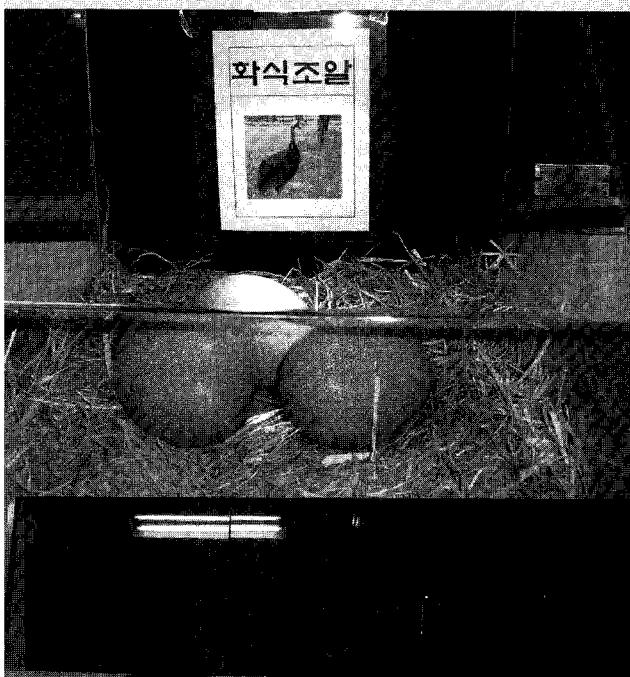
한 해를 마감하고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기이며 한해가 다시 시작되는 시기인 2004년



▲은계, 백한, 호로새 등 관상용 닭과 실용계 전시



▲부화기 및 육주기를 배치하여 병아리 탄생 과정을 관람객에게 제공



▲병아리를 직접 키우는 장면 공개

◀희귀조류알 및 그림을 볼 수 있고, 화려한 타조알 예술품을 전시하였다.



▲시골풍경 설치

12월 25일 크리스마스부터 음력설과 정월 대 보름이 있는 2005년 2월 28일 까지 열리게 됩니다. 장소는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내 아프리카 1관(기린관)입니다.

Q 전시되는 닭 종류와 소비자가 볼거리는 무엇이 있나요?

전시하는 닭 종류는 난용종, 육용종, 난육겸용종, 관상용종으로 민목계, 긴꼬리닭, 은계, 산계, 호로새, 백한, 싸움닭, 황금계, 당닭, 오골계, 토종닭과 실용계(로스, 로만 레그흔 등) 총 22쌍 44마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중 60~70%가 전시장을 찾아 올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대부분 관람객은 부모와 학생, 연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람객에게 닭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해 '닭의 궁금증', '닭에 관한 민속자료', '닭의 비밀', '닭의 정의' 등 알림판을 만들었고, 병아리 탄생 과정과 사육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화기, 육추기, 사육장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닭과 비슷한 조류사진과 알을 함께 전시하여 볼거리와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였고, 화려한 타조 알 가공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150명에 한하여 전시장에서 넣은 행운의 알을 나누어 주고, 소원을 담은(우편엽서) 희망나무 가꾸기 행사도 펼쳐집니다.(정리 | 김종준 과장) 88쪽